

한국문화사의 주목할 만한 서지학

박대헌 지음 《서양인이 본 조선》

신복룡

전국대 교수·정치학

문화의 창조니 역사의 창조니 할 때 그 주역은 과연 누구일까? 한때는 영웅이 역사와 문명을 이끌어간다고 생각했고, 요즘에는 갑자기 민중이 그 주역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역사를 되돌아보면 인류의 문화를 이끌어 온 사람들은 대개가 그 시대에 외딴 인생을 살아온 기인(奇人)들이었다.

그가 도스토예프스키였든, 베토벤이었던, 아니면 반 고흐였든, 역사에 족적을 남긴 사람들은 모두 인생의 어느 부분을 유보한 채 자신의 삶을 살았다. 그들에게인들 처자가 없었을까만은 때로는 그 소중한 핏줄마저도 돌보지 않은 채 살아온 그들은 그 시대의 이단아들이었으며 적절한 보상도 받지 못했다. 그들은 대체로 숨어사는 외톨박이였으며, 당대에는 역사의 평가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아마도 필부의 눈에는 그들이 어리석거나 광인처럼 보였을 것이다.

어느 문화창조인들 쉬운 일이 있을까만 책을 읽고 쓰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이었겠는가? 쉽게 쓰고 베끼는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양심이 있고 적어도 백년의 후세만이라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잉크로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피를 찍어 쓰는 것이나 다름이 없고, 일점·일획에 토씨 하나까지도 술한 번민을 거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하물며 1천 쪽에 이르는 방대한 노작임에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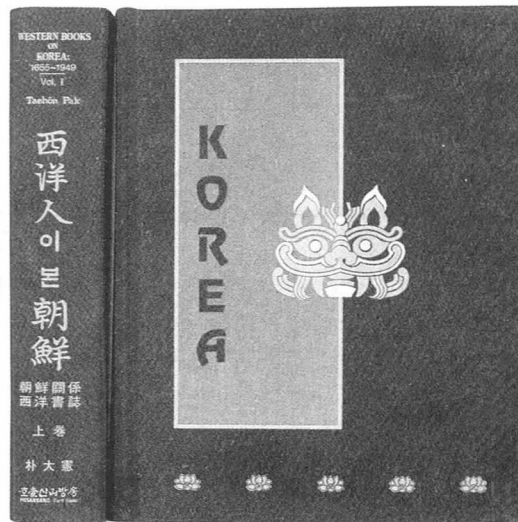
단순 소개 넘어 시대 배경까지 서술

이 책의 저자인 박대헌(朴大憲)은 많지 않은 나이에 오로지 책에만 매달려 치열하게 살아온 한 기인이다. 나는 그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찌면 역사나 문명이니 하는 것들은 저러한 젊은이의 몫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아무리 천 권의 쯤먹은 책 속에 묻혀 세월을 잊는다(千卷蠹書忘歲月)고는 하지만,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안겨 주는 것도 아닌데 애오라지 책만을 들여다보고 산다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것은 내 나라의 민족문화를 지키겠다는 애뜻한 뜻이 없고 역사를 고뇌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다.

이 책은 한국학과 관련하여 1650년대에서

이 책은 한국학과 관련해 165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 서구라파에서 발행된 회귀도서 188종의 해제를 담았다. 단순히 수록내용을 소개하는 정도를 넘어서 시대적 배경을 서술해 이해를 돕는다. 격동기 한국 역사뿐 아니라 생활사의 공백도 메꿔주는 일차 사료다.



1940년대까지 서구라파에서 발행된 회귀도서 188종, 261판본, 287책을 해제한 것이다. 해제라고 해서 단순히 그 수록 내용을 소개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그 저작의 시대적 배경을 먼저 서술함으로써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이러한 서양 서적들이 한국학의 연구에 지대한 가치를 갖는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로, 당시의 한국인들은 자신의 역사나 생활사를 기록하는 데 소홀했는데 이 서양 서적들이 그 공백을 메워준다는 점이다. 둘째로는 역사나 문화사를 자신이 쓸 경우 연민과 애착으로 인하여 사실의 기술에 다소 편견이 있을 수 있는데, 이방인의 눈에 비친 역사서술은 당사자가 미처 보지 못한 부분을 기록하는 예리함이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여기에 수록된 서양 서적들은 격동기의 한국의 역사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지리·종교·민속·음악·문학·전기·과학·인쇄기술사 등의 일차 사료라고 할 수 있다.

책이란 일차적으로 문자의 전달이 중요하지만 이 책에 수록된 550쪽의 원색 사진은 그 자체로서 한국문화사의 척도이다. 그것은 생활사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예컨대 캠프(E. G. Kemp)의 경우처럼 화가가 스케치 여행을 하고 남긴 작품과, 각종 판화와 사진 등은 한국회화사(韓國繪畫史)에도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그밖에 동물지(動物誌)나 식물지(植物誌)의 도판은 자연사의 연구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지도 또한

중요한 사료가 되고 있다. 한국 관계 서양 서적들이 이토록 중요한 자료라 하더라도, 필자 박대헌이 유념하고 있듯이, 독자들은 이러한 책들을 읽으면서 그 내용을 무비판적으로 믿는 실수를 저질러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이들은 남이 쓴 저술인 만큼 오류가 있기 때문이다.

이 책들의 오류는 크게 두 가지로 기인된다. 첫째로는 이 책들을 쓰면서 인용한 자료들이 중국이나 일본의 서지일 경우, 여기에 포함된 오류가 여과 없이 전제된 경우가 있는데, 예컨대 서양 서지 중 최고의 노작으로 꼽히는 그리피스(W. E. Griffis)의 《은자의 나라 조선》(Corea: The Hermit Nation)이 이 경우에 속한다. 둘째로는 필자의 악의적인 오류인데, 이토 히로부미의 정치 고문이었던 래드(G. T. Ladd)의 《조선에서의 이토 히로부미 수행기》(In Korea with Marquis Ito)가 그러한 예에 속한다. 따라서 이러한 책들이 한국학의 연구에 기여하려면 전문가의 주해서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일부의 오류가 서양 서적의 가치를 전반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은 아니다.

15년에 걸친 방대한 서적 수집

이제는 한국의 고서에 대해 다소 인식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요즘같이 타산적인 시대에 큰 벌이가 되는 것도 아닌 회귀고서를 300권 가까이 수집했다는 것만으로도 장한 일이다. 이 정도의 수장 도서라면 우선 그 수량에 있어서 미국 의회도서관의

장서에 못지 않다는 점에서 놀랍다.

이들이 출판된 서구라파가 아닌 한국에서 이를 수집하는 동안에 그가 겪었을 뒷얘기는 아마도 소설보다도 더 소설적이었을 것이다. 그가 아니었다라도 누군가 그 책을 소장하고 있었겠지만, 아마도 남의 나라 손에 넘어갔을 수도 있는 이 귀중본들이 이 만큼 한 자리에 모인 것만으로도 장관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점에서 그는 전형필(全鎿弼)을 연상케 한다. 더구나 1천 쪽에 이르는 이 책의 해제는 돈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요 혼자만의 오랜 고뇌가 있었으리라고 짐작된다.

나는 그가 15년에 걸쳐 이 방대한 서적을 수집하고, 집필과 제작에만 5년에 걸쳐 17번의 교정을 보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제는 그만 출판을 하라고 권하면서도 명색이 글쓰기를 생업으로 하는 나 자신의 모습을 여러번 되돌아보았다. 이 책은 독자층이 한정되어 시장성도 없다. 이제 이 책을 출판한 것으로 고행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그 많은 책들을 수집하고 또 해제를 쓰는 동안에 겪었을 어려움보다 더 큰 세속적 아픔을 겪게 될 것이다.

물론 그가 어떤 보상을 원했다더라면 당초부터 이 작업을 시작하지도 않았을 것이지만, 나는 이 나라의 문화계가 그를 격려해 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 작업을 지켜보면서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었던 나는, 쿠랑(Maurice Courant)의 《조선서지학》(Bibliographie Coreenne, 1894) 이후 한국서지학사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이 노작을 쓴 그를 서지학자라고 불러줌으로써 그를 위로할 수밖에 없다. ❖